

 부산국제금융진흥원	<h1>보도자료</h1>			
	보도	2024. 11. 20.(수)	배포일	2024. 11. 20.(수)
담당부서	금융연구2실	실 장 김수영 (051-631-2760) 팀 장 안남현 (051-631-0282) 매니저 권민경 (051-631-0267)		

부산국제금융진흥원, 「제12회 부산금융중심지 포럼」 개최

□ 부산국제금융진흥원(원장 이명호)은 11월 20일(수) 오후 2시 한국철도공사 부산역 회의실에서 「제12회 부산 금융중심지 포럼」을 개최했다.

< 제12회 부산 금융중심지 포럼 개요 >

- ▣ **주관** : (사)부산국제금융진흥원
- ▣ **일시/장소** : 2024. 11. 20.(수) 14:00~17:00 / 한국철도공사 부산역 회의실 530호
- ▣ **주요 참석자**: 금융감독원, 한국은행, 사원기관(부산광역시·한국거래소·한국자산관리공사·한국주택금융공사·한국해양진흥공사·BNK부산은행·기술보증기금), 실무 전문가, 학계 및 업계 인사 20인 내외
- ▣ **주제 발표**: ①원화선박금융을 통한 민간선박금융 활성화(부산국제금융진흥원 해양금융센터 이동해 센터장), ②싱가포르의 자발적 탄소시장과 부산에의 시사점(부산국제금융진흥원 ESG·증권·파생금융팀 안남현 팀장/송병도 차장)

□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2022년부터 분기 1회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에 필요한 과제 발굴 및 추진방안 논의를 위해 국내 금융전문가들과 부산금융중심지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.

○ 제12회 부산금융중심지 포럼은 2024년도 마지막 포럼으로,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실천해 온 그간의 노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, 앞으로 부산이 주도해 나갈 해양금융 및 녹색금융에 대해 전문가 22명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.

-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동해 부산국제금융진흥원 해양금융센터장은 선박금융시장에서 민간 금융기관의 이탈 원인 중 하나로 달러 유동성 관리 어려움과 조달 금리 불리를 지적하며,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원화선박금융 실행구조를 제시하였다. 이를 통한 민간은행 선박금융 참가 활성화와 국내 자본시장에 양질의 원화 대출 참가 기회를 제공케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.
-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부산국제금융진흥원 ESG·증권·파생금융팀 안남현 팀장과 송병도 차장은 자발적 탄소시장(VCM)의 선두주자인 싱가포르의 사례를 분석하여, 부울경 지역 해운산업 중심의 자발적 탄소 시장의 가능성을 제시했다.
-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이명호 원장은 “이번 포럼은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약을 위해 해양금융 및 녹색금융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”며, “앞으로도 부산의 금융중심지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,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※ 붙임 행사사진 1부. 끝.

